

Kormeat News



양계산업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업무협의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2005년 5월 3일 본부 회의실에서 닭고기 등급판정 활성화와 국내 닭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를 통해 닭고기 등급판정 현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내 닭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의 유통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 닭고기 소비를 증진시키고, “등급닭고기 시범판매장(가칭)” 지정 등 포장 닭고기 판매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포장 닭고기 판매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벌크진열(비포장)판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국내 닭고기 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나아가 기능성 닭고기와 토종닭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오리육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 등의 의견도 있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업무협의회 결과를 최대한 반영, “등급닭고기 시범 판매장(가칭)” 지정 방안과 홍보계획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닭고기 등급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5월 중순경에는 계란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통업체 계란담당 바이어를 대상으로 업무협의회를 개최해 계란·닭고기 등급제도의 활성화로 양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 재발급업무 인터넷서비스 개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를 본부에서 재발급해 교부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계산서 재발급업무를 5월분 부터 실시한다. 현행 계산서 교부방법은 본부에서 발급한 계산서를 작업장으로 송부해 작업장경영자가 등급판정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간접교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부 대상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많았다.

이번 계산서 재발급업무의 인터넷서비스 실시로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 서비스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축산업무 관련 해외사례 조사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선진국에 대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 현황과 축산물 등급제, 부분육 유통사례 등을 방문 조사했다. 일본과 프랑스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조사는 5월2일~11일(10일간) 덴마크와 독일의 소·돼지등급판정 및 부분육 유통사례 조사는 5월8일~17일(10일간)까지 총 4개국을 방문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축산 선진국의 축산제도와 유통사례를 국내축산물유통에 접목함으로써 선진축산기법 도입과 현행 문제점 개선 등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